

전 남

“골재채취 더 이상 안된다”

2007년 허가 4곳 복구 안돼 땅 소유주들 피해 郡, 신규 허가 움직임에 함평 월야면 주민 반발

함평군 월야면 주민들이 군의 신규 골재채취 허가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월야면 사회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에 따르면 월야면에는 현재 4개의 육상 골재채취 허가가 나와 2007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현재 복구를 못 하고 방치된 채 땅소유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함평군이 또 다른 신규 사업허가를 하려 하는 것은 월야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무분별한 육상 골재채취로 인근 농토의 환경피해와 도로파손, 지하수 고갈, 교통사고 위험요인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함평군이 최근 또 다른 신규 골재채취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월야면 육상 골재채취 결사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군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허가를 내준 월야면 월악리 육상 골재 채취장은 3개의 현장중 2곳의 골재채취 현상이 중단돼 있고 나머지 1곳은 골재채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토지 사용을 해준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곳에 토지 사용을 허락해준 주민들 대부분은 업체의 사정으로 경작보상비를 수개월째 못받고 있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육상 골재채취장. 복구가 안된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은 농사를 못 짓고 복구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 소유자 A씨는 “사업이 중단된 이곳 월악리 2곳의 채취장에는 14명의 땅 소유자들이 경작보상비를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수백여 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 만원이 넘는 등 피해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땅소유 주민들과 업체의 문제라며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허가당시 땅 소유자들이 동의해 도장을 찍어놓고 이제 와서 행정에게 따지려 한다”며 “현재로서는 업체에게 복구를 빨리 해주라고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육상 골재채취가 끝났는데도 제대로 복구 안돼 땅 소유주들과의 민원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

어 육상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신중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인 B(월야면)씨는 “월야면에는 토사도 부족한 실정이고 기존 허가받은 골재채취장도 복구도 안된채 방치돼 있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왜 군은 주민들 민원을 뒷전이고 또 다른 신규허가를 내주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는 처사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업체에서 아무런 법적문제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급으로선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며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신뢰도 높인다

전국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전남도가 명예감시원제 운영 및 부정인증 신고센터 설치 등 소비자 신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교육 강화 ▲산류농약 검사 ▲부정인증신고센터 설치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제 운영 ▲부정인증 신고포상금제 운영 ▲부정인증농가 보조금 페널티 적용 등의 시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급증하면서 일부 소비시장에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생산자인 농업인도 자칫 친환경농업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관리 교육·산류농약 검사
신고센터 설치·신고포상금제
명예감시원 140명 상시 감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관련 유관기관 회의와 시군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한 회의를 지난 11일과 12일 잇따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무농약인증 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25%까지 확대하고 ‘전남농산물 하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갖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기

로 다짐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 농업인에 대한 인증교육 강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구성된 명예감시원(140명)의 인증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시활동 추진, 도와 22개 시군에 설치 운영중인 부정인증·유통신고센터 활성화 등에 나선다.

또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산류농약 검사비 지원, 산류농약 검출시 해당농가의 인증 취소와 함께 향후 3년간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이 전국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57%를 차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부터는 소비자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며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해외수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남군 보건소 이주여성 통역 5년 연속 우수

해남군 보건소가 결혼 이주여성 통역 시범보건소로 5년 연속 선정됐다. 군 보건소는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이주여성 통역사업에 참여해 지역내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한국말이 능한 브레로 제니(필리핀·33)씨와 디타타이(베트남·28) 등 2명의 이주여성을 선발해 한국어 시집은 결혼 이민여성의 통역과 건강관리를 돕는다.

이들 통역요원들은 시간당 1만원의 심비수당을 받고 주 9시간씩 보건소 여성 건강상담실에서 근무한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필리핀어, 월요일과 금요일은 베트남어 서비스를 제공해 ▲이주여성들의 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교육시 통역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통역시범보건소는 전국적으로 25개 보건소가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해남군을 비롯해 4개 보건소가 선정됐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귀농학교 농기계 교육.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가 주관하는 ‘빛고를 귀농학교’ 수강생들이 지난 14일 농기계 조작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귀농을 희망하는 직장인과 텃밭을 가꾸려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송기동기자 song@

해남 축구장 부실시공 관대한 처분 논란

재시공 대신 재료비 환수 그쳐

해남군이 수습역원을 들여 조성한 인조 잔디구장의 부실공사에 대해 재시공 대신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해남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두류산 도립공원 내에 20억원을 들여 다목적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관람석, 펜스 등을 설치했다.

시공 업체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난해 6월 준공처리해왔다.

부실공사는 소문을 듣고 행정사무

감사에 나선 군의회가 골작기를 동원해 축구장을 파 본 결과 드러났다.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 12cm 두께로 황토와 시멘트 배합제를 섞어 다짐하게 돼 있지만, 6~8cm로 규격에 미달한데다 자재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부실공사로 규정한 군의회는 집행부에 전면 재시공을 촉구했다. 그러나 군은 축구장 사용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미사옹된 자재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환수하는 선에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와 절충했다.

업체에서는 재시공 사유가 명백한데도 이례적인 특혜라는 주장이다. 군은 또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은 공무원은 ‘훈계’ 처분에 그쳤다.

A 의원은 “자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부실 공사에 대해 재시공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재료비만을 환수하는 이런 자치단체가 어디 있느냐”면서 “업체와의 특별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재시공하면 인조잔디를 파기 처분해야 하고 공사기간 축구장 사용이 불가능해 재료비 환수만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거북선축제 전국화 모색해야” 여수시민단체協 보고서

여수의 대표 축제인 거북선축제의 전국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 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최근 중화동 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린 거북선축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내고 전국화를 위해서는 축제 내용에 대한 변화와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축제 명칭이 종전 잔디에서 거북선축제로 바뀐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명칭 논란을 빚는 것은 전국화에 큰 걸림돌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명칭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매년 2월 축제준비 토론회, 축제 후에는 평가토론회를 각각 열어 개선점 파악, 발전방안 모색에 나서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길놀이 등의 가장행렬 물품, 문서나 동영상 등 축제 자료 상시 보관 공간 마련 등도 제안했다.

여수시민협은 “시의회가 지난해 거북선 축제 예산 7억2000만원을 의결하면서 세부항목별 지출액을 정했으나 실제 축제에서는 이와 다르게 집행됐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motel·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얼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복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도곡온천 무인모텔 객실 70 감정 48억 대출 30억 법인이전 39억
- 쌍촌동 상가·목욕탕·주택 대지 111 건평 367 대출 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1억 3천
- 교회건물, 구시청(이마트)앞 대지 71 건평 239(4층 건물) 노인요양시설포함 은행 1억 7300만원 매도 5억4천
- 대인동 소방도로코너 5층상가건물 대지 67 건평 210 공시지가 2억9천 대출 4억 4천 6천
- 유동 모텔 대지 133 건평 306 요양시설착함 6억천
- 유촌동 땅 1632평 최고 350평 공시지가 14억2천 매도21억
- 교회부지 내방동 484평 대출7억 매도 8억9천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372 공시지가 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화순 이양면 소재지 국도점 주거지역 596평 최고·공정적합 대출5천5백 공시지가에 매도8700만원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1억5천
- 광주역앞 원복 대지108 건평383 감정11억8천 매도 6억4천
- 황금동 4층 상가주택 대지 68 건평 145 매도 3억9천
- 주유소 화순읍 땅 1118평 공시지가 10억8천 매도15억5천
- 동림동 아파트 예정지역 계획도로 코너 대지 135평 1억6천
- 롯데백화점 부근 대지 90평 4층 건물 공시지가 5억 매도 4억5천

■매도·교환

-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은 1억7500
- 남평읍 교원리 버스도로점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8백
- 시흥부지, 북구 덕의동 공주점 부근 1840평 4억8천
- 하남공단 도전동 자연녹지 506평 공정적합 3억8천
- 순창읍 모텔 땅 1640 객실18 대출 2억7천 교환원함 7억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기자,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 서구 쌍촌동 3층상가 대지 55평 건평 100평 감정72억 6천만 최저가98천만
농가시설	· 광산구 비아동 3층상가 대지73평 건평131평 농가시설 감정3억5천만 최저가 2억 4천만
단독주택	· 서구 벽진동 대지 143평 건평 57평 감정가 1억4천만 최저가 9천9백만
전원주택	· 화순군 능주면 대지 135평 건평 56평 2층주택 최저가 6천5백만
근린주택	· 곡성군 곡성읍 2층상가주택 대지31평 건평62평 감정가 1억3천만 최저가 8천9백만
다가구	· 서구 화정동 3층 대지63평 건평105평 감정가 3억 2천만 최저가 2억 2천만

광주 서구 마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열 유지빌딩 501

전원주택지 급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 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 (3.3㎡당 365,000원).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및 임대.

-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2,486.5㎡(752평), 공장1,120㎡ (338평).매매가 11억3,000만원, 임대시 보증금 5,000만원 월500만원.
-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64㎡(8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 화순군 도곡면 효신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6만원.

자연녹지

- 서구 매월동 서광구역 앞 전, 2,590㎡(783평), 3.3㎡당 98만원.
- 광산구 산월동 호반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자연녹지, 현재 임야.

무등산 전원주택지

-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 임, 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상무지구 나대지(업무용지)

-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함, 993㎡(300평), 매매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 ☆.보증금 : 10억원 월세 :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73억원
- ☆.보증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 : 32억원
- ☆.보증금 : 8억2천 월세 :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28억원
- ☆.보증금 : 1억1천 월세 : 350만 매매가 : 6억7천

♣ 전원주택

-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 ☆.광산구 오운동 대지4,926㎡ 건물 : 66㎡ 매매가격 : 2억3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 ☆.담양군 수북면 공산리 전원주택단지 내 대지654㎡ 매매가 : 1억2천8백만원

♣ 대지, 전, 답, 임야

- ☆.차평동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 ☆.북구 윤암동 프린스호텔옆 35M도로점 대지 677㎡ 매매가 ㎡당 3백만원
- ☆.임촌동 청학마을대 : 3,600㎡ 매매가 4억9천
- ☆.광산구 옥동(명동)주거지역 답, 4,38㎡ (원룸적합) 매매가 ㎡당 20만원
- ☆.광산구 우산동 답279㎡ 매매가 4,200만원
- ☆.장성면면 임야 : 13,500㎡매매가 : 4억5천만원

♣ 무인모텔

- ☆.광산구 우산동 무인모텔 대183평 건500평 객실 32개 매매가 15억5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